백두산 2

21세기 태양 대학시절

주체91(2002)년 5월 6일

대학교육에서의 주체확립

안녕하십니까. 언제인가 한 청강생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지도자로서 활동하신 내용을 좀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인은 그 누가 내세우거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풍모로 하여 만사람이 공인하고 위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은 대학시절에 벌써 청년지도자로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군님께서 그 시기 벌써 비범한 사상리론으로 사상리론계를 크게 뒤흔들어 놓으시고 뛰어난 조직력으로 청년운동을 이끄셨을 뿐 아니라 고매한 덕망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신 걸출한 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대학시절은 매 하루하루가 청년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빛내이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벌리신 그분의 활동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그리고 청강생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우리 강좌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강의를 근 50회라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시기에 보여주신 청년지도자로서의 걸출한 영도풍모 가운데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 이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그를 통해서 청년지도자로서의 위인상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열 번에 걸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신시키신 그분의 높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을 하나 가르쳐도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리론을 가르치며 자연과학을 가르쳐도 우리 나라의 자연을 리용해서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혹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나라의 것만 배워주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 고전보다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 정책을 많이 가르쳐주며 다른 나라의 역사나 지리 보다 우리 나라의 역사나 지리를 많이 가르쳐준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것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더 잘 리해하자면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교육에서 주체가 서지 않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대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것은 배워주지 않으면서 다른나라의 것만 배워주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강의에서 다른 나라의 종파에 대해서는 실례를 들면서도 우리 나라 종파에 대한 실례는 들지 않는다든가 다른 나라의 화강석이나 대리석은 알려주면서도 조선의 화강석과 대리석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조선혁명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주체가 서지 않는 교육입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혁명을 잘 하자면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사람들을 우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높은 자질과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오신 1960년대 초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기 주체47(1958)년에 이르러 우리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습니다. 북반부에서는 196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이 다그쳐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그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워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육실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원들과 학자들은 낡은 교육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결과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데서 기성의 리론에 적지 않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떻든 기성의 리론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성의 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사회주의공업화 이전에 농업협동화를 먼저 하는 독창적인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론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한 다음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리론을 절대화한 결과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선행이론의 공식대로 사회주의공업화를 먼저 하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 드렸지만 그때 교원들과 학자들은 많은 경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해서 선행이론을 해석하고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론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오시어 강의를 받으시는 처음부터 이러한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실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의 주체적인 세계관확립을 각방으로 저해한다고 인정하시고 곧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시키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 강의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다하신 그 높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다하시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따라 자주 만경대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만경대 혁명적 가정의 높은 뜻을 배우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자제분에게 한 걸음을 걸어도 나라를 생각하고 두 걸음을 걸어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만경대 고향집의 근본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시절부터 만경대혁명 일가의 고결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교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중학시절에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배우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드셨습니다. 고중을 졸업하신 다음에는 외국유학을 권고하는 사람들의 권유도 마다하시고 조국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셔서 조선을 세계의 만방에 빛내일

대학시절

대학교육에서의 주체확립
주체의 정치경제학
대학시절의 사상이론활동
사상의식 관련 명언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독학가의 정열로 학습에 열중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을 일찍부터 지니셨기에 대학에 입학하신 처음부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신 데 는 또한 교육일꾼들과 대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자주성이 강한 인간으로 키우시려는 높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실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육실태는 우리 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 볼 때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훗날 당시의 이러한 교육실태를 두고 노동계급적 선이 뚜렷하지 못하고 새 것과 낡은 것이 혼탕된 범벅교육이였다고 가슴 아프게 회상하시였습니다. 범벅교육의 후과, 특히 기성의 리론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가르치는 교육의 실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교육실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깨달으신 분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보시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셨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교육사업에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애하는 그분께서 대학시절에 학생의 몸이셨는데 어떻게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사업에 관여하실 수 있었는가 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앞의 강의들에서 이야기 된 바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중하셨고 불타는 정열과 지칠 줄모르는 노력으로 인류가 이룩한 과학의 상상봉을 점령해 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전공인 정치경제학은 물론이고 철학과 역사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누구도 따르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스레닌주의 고전에도 정통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환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 변화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고전에 나오는 어느 명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릇된 견해이며 또 어떤 명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리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일깨워주곤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학과토론에 출연하실 때에는 그 심오한 리론과 풍부한 례증, 해박한 지식에 탄복해서 경제학부 교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부의 교원 학생들도 토론회장에 모여들어 그분의 학과토론을 즐겨 듣곤 했습니다. 실력면에서만이 아니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한히 겸손하시고 인정미가 흘러넘치는 고결한 인간풍모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을 따르고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무비의 과학리론적 실력, 고결한 인간적 풍모와 덕망으로 해서 대학생들 속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계셨으며 교수들과 학자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위는 그이께서 대학교육사업을 개선하는 데 관여하실 수 있는 주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정치경제학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 청년지도자로서 대학생들의 학습과 대학교육내용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분께서 전공학과인 정치경제학을 주체적 립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해주신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전공학과의 교과서를 다시 쓰도록 영향을 주었다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학생이야말로 보통 두뇌를 가지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전공학과의 교과서를 고쳐 쓰도록 영향을 주자고 하면 교과서의 잘못된 점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비범한 안목과 과학이론분야나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해박한 사상리론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습니다. 오늘 이름난 정치지도자들이나 사상이론가들이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원로로 사상이론의 거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벌써 10대의 대학시절에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우리의 사상리론계를 크게 뒤흔들어놓으시며 사상이론의 걸출한 위인으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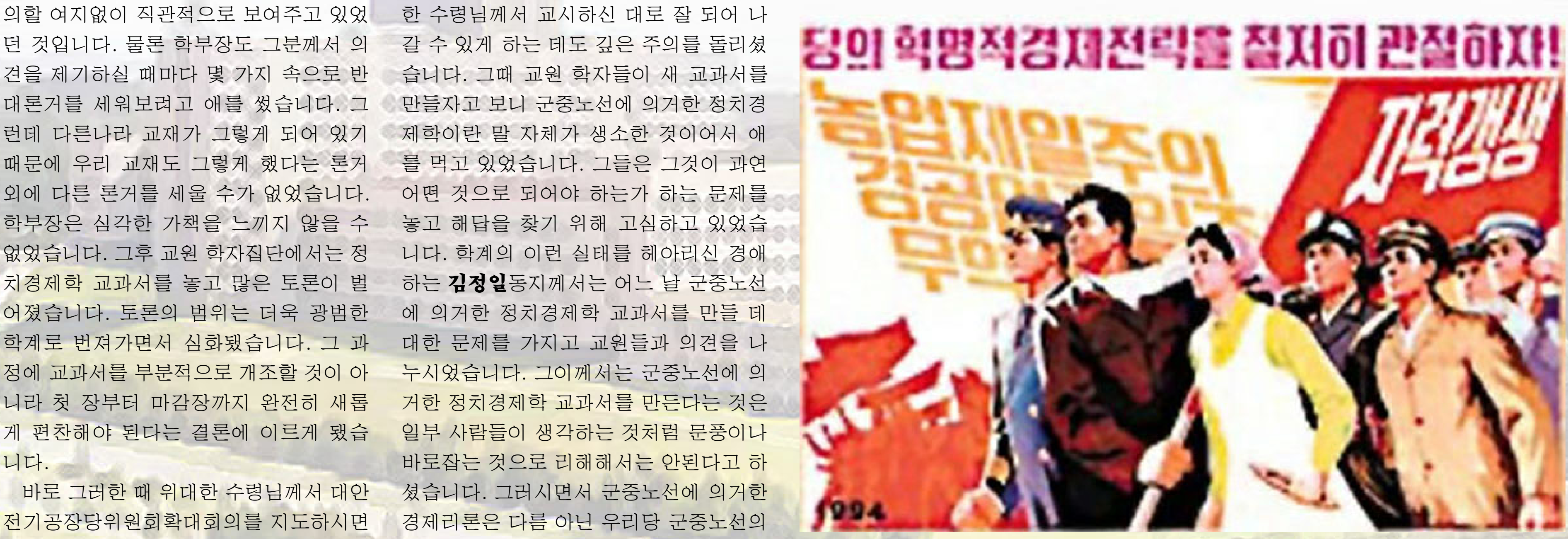
그럼 그분께서 전공학과인 정치경제학을 주체적 립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입학하시어 한 1년간 강의를 받아보시는 과정에 경제학이 우리 당정책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기초해서 과학리론적 문제들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든다면 그때 정치경제학에서는 공업화와 농업협동화문제를 취급하면서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 선행이론에 맞춘 것이었고 생산력이 먼저 발전하고 그에 상응하게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한다는 유물사관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를 하기에 앞서서 농업협동화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의를 받으시면서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낡은 교육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때마다 의견을 제기하곤 하셨습니다. 학부장은 그분의 의견을 받을 때마다 그 예리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대목마다 교과서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줄, 두줄 늘기 시작한 밑줄이 1년이 지나서는 모든 장과 절은 물론 매갈피에 온통 줄이 그어지게 됐습니다. 자본주의체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경제공황의 주기문제라든가 과도기의 기본특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문제, 참으로 그분께서 새롭게 가르쳐주신 대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정치경제학 교재집필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그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학부장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종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부장도 그분께서 의견을 제기하실 때마다 몇 가지 속으로 반대론거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나라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그렇게 했다는 론거 외에 다른 론거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장은 심각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 교원 학자집단에서는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놓고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의 범위는 더욱 광범한 학계로 번져가면서 심화됐습니다. 그 과정에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개조할 것이 아니라 첫 장부터 마감장까지 완전히 새롭게 편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 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교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잘 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교원 학자들이 새 교과서를 만들자고 보니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것이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날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원들과 의견을 나누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풍이나 바로잡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은 다름 아닌 우리당 군중노선의 요구를 구현한 경제리론이라고 그 본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제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는 것이며 경제과업을 해결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명철한 분석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본질과 특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



제리론을 연구하고 전개하는 주체적인 방법론이 서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셨습니다. 종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생산관계라고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고전의 명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생산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전면에 제기했습니다.

레닌은 정치경제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생산의 경리형태에 관한 과학이라고 함으로써 생산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스딸린도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생산관계, 경제관계라는 것을 찍어서 강조했습니다. 선행 고전가들의 이런 규정대로 한다면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라든가 ≪공업화≫ 그리고 ≪기술혁명≫과 같은 문제들은 취급하기가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제들은 생산관계가 아니라 생산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고전가들의 명제를 절대화하면서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립경제라든가 공업화, 기술혁명 같은 것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학자는 자본주의경제학에서는 생산관계를 연구하지만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는 생산력의 합리적 조직을 연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옳게 밝히는 문제는 정치경제학 서술에서 해답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고전가들의 규정을 기정사실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음미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정치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다시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밝혀주심으로써 물질위주의 견지에서 규정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사람위주의 견지에서 새롭게 규정하도록 그 방법론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새 교재집필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됐습니다. 훗날 우리의 모든 대학들, 간부양성기관들에서 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체적인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바로 이렇게 집필되게 됐습니다.

그때 새 교재집필에 참가했던 학부장은 이때를 회상해서 쓴 한 편의 회상실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새로운 정치경제학 교재의 집필과정 그것은 우리 교원들이 주체교육의 참다운 길에 들어서는 훌륭한 배움의 나날이였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일러왔습니다. 진정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교원 학자들의 위대하고 영명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오신 사상이론의 영재,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학시절의 사상이론활동

오늘부터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사상리론활동을 어떻게 벌리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상리론활동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옳은 리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운동은 곧 사상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가지는 것은 혁명운동의 출발점이며 근본전제입니다. 그런데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전진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합니다. 그런 것만큼 혁명운동이 전진하는 데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면 혁명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상이론활동이라고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데 맞게 혁명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해 나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사상리론활동을 어떻게 벌리셨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는 대학시절의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을 총괄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들에서 말씀드린 바이지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뛰어난 사상리론적 예지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셨습니다. 여기에다 그이께서는 남다르게 무엇이든지 탐구적이고 분석적이며 독창적으로 사색하시는 천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이께서는 스무살 안팎의 대학생시절에 종래의 그 어떤 사상리론가들과도 비길 수 없는 말 그대로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셨고 빛나는 사상리론적 공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며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불후의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논문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되는 학과토론들에 출연하셔서 수많은 과학리론적 문제에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셨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학생들은 물론 교원, 학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생들, 교원들, 교육행정일꾼들과 자주 만나셔서 선행고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신 것을 비롯해서 매우 넓은 범위에 걸치는 담화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때 그이께서 내놓으신 론문이나 담화, 연설, 대답들은 어느 분야나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철학, 정치경제학, 역사학, 교육학, 문학예술, 언어학, 법학, 군사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학술적 문제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이런 학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 대학의 당 및 교육행정사업에서 나서는 전반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이의 론문, 담화, 연설, 대답, 결론, 서한들은 1,500여건에 이릅니다. 선행한 노동계급의 수령들인 맑스나 레닌의 경우를 봐도 대학시절에는 이렇다 할만한 논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권의 단편적인 글들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내놓으신 그처럼 방대한 문헌들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후의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참말로 귀중한 문헌들입니다. 이 강의에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행한 역사학과 관련한 그이의 과학이론적 공적에 대한 강의들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서만도 고대사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식민주의사관, 사대주의사관에 의해서 왜곡서술되 내려오던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신 것과 같은 새로운 학술상의 발견들을 하셨습니다. 4년 가까운 길지 않은 대학시기에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사상리론활동을 진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시며 다재다능한 재사이심을 뚜렷이 실증해 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기의 사상리론활동을 통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가장 충실한 신봉자, 위대한 계승자로서의 고결한 풍모와 특출한 자질을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태로부터 노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한 문헌들 중 몇 개만을 들어본다면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음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다음 ≪혁명가의 영생하는 삶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있다≫ 다음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이상과 같은 문헌들입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문헌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에 관한 사상, 수령의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계승완성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수령론을 정립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전당 전민 전군을 일심단결시킬 수 있게 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됩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으로 고전적인 문헌 ≪철학의 기본문제를 바로 리해할 데 대하여≫ 그리고 ≪사람은 사회관계의 주인이다≫ 또한 ≪역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대하여≫ 또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를 비롯한 문헌을 발표하

심으로써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종합 체계화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는 역사적 과업수행을 위한 사상리론적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 중엽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위업수행을 위한 사상리론적 기초는 그이의 대학시절의 사상리론활동에서 마련됐었습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을 과학적으로 분석론증한 문헌들을 수많이 내놓으심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발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또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자≫를 비롯한 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제시하신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힘있게 추동한 훌륭한 문헌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시기에 또한 군사분야에 대한 수십 권의 문헌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고전적 문헌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대하여≫ 다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사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를 비롯한 군건설과 각 군종, 병종들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문헌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군리론과 전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군사적 예지가 뚜렷이 반영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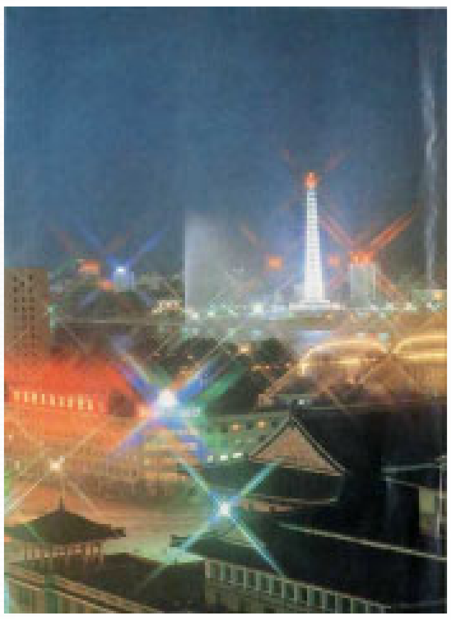
이런 것을 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벌써 20대 안팎의 젊으신 시절에 문무를 겸비한 천출명장으로서의 특출한 자질을 과시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밖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더 들어본다면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와 그 발전추이를 과학적으로 꿰뚫어보시고 현대제국주의와 수정주의의 특징과 본질 그리고 그 위험성을 론증하신 문헌들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고전적 노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다음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 재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다음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성≫ 이상과 같은 문헌들은 1960년대 초엽에 발표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발표된 이 고전적 문헌들을 놓고 볼 때 오늘의 세계현실은 정세발전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정세판단력 그리고 비범한 이론적 분석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절의 사상리론활동은 사상리론의 영재, 탁월한 정치가, 걸출한 군사전략가로서의 특출한 풍모를 보여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상의식관련 명언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으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상의식의 역할과 관련한 명언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의식의 역할과 관련한 명언들 가운데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은 용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먼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세계의 발전을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라는 진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세계의 발전은 돈이나 원자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물론 재부나 무기가 인류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통해서 인간생활에 작용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무기가 위력하다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후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상은 시대의 변화발전에서 큰 작용을 놀게 됩니다.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를 전진시키는 보편적인 지도사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세계의 정계, 학계, 언론계의 진보적 인사들이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체66(1977)년에 있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모 인사는 자기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면모를 개변한다고 하니 나는 지지점과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우주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고대희랍의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도 지렛대도 얻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 주시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세계의 면모를 개변하는, 특히는 뒤떨어졌거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개변하는 주체사상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모스크바종합대학 교수 꼼떼는 ≪나침반이 없는 배가 자기의 목적지에 가닿을 수 없듯이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민들은 사회를 옳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오늘 세계 인민들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여주는 나침반은 오직 주체사상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신문 에이쉬언타임즈 주필 키팀레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인류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인류를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에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이는 정녕 인간운명의 구세주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흠모하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저 하늘의 태양의 영원한 빛발과도 같이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지구상에 인간옹호의 영원한 봄을 펼치고 있으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이 봄의 수호자로 인류와 함께 영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이며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입니다. 현시대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가는 주체사상의 위력은 백만금의 재부나 그 어떤 원자무기에도 대비할 수 없는 백전백승의 위력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은 용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있다.≫이 명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미는 그가 어떤 사상의식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규정된다는 진리를 밝혀주는 명언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 생기고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는 데 바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상의식입니다. 훌륭한 사상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헌신분투하는 고결한 정신세계와 도덕적 풍모에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매력 앞에 사람들은 정신도 덕적으로 완전히 매혹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리인모동지는 남조선에서 3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43년만에 가족들이 있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방문한 한 나라의 대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아프리카의 넬슨만델라도 28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34년간의 옥살이는 지상최대의 악형이며 이런 악형에서 견디어낸 당신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고 세상에 처음 보는 옥중투쟁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나를 높이 보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어머님에게서 육체적 생명을 받아안은 평범한 사람이오. 나도 때리면 맞아터지고 쏘면은 총알을 맞고 죽게 되어 있소. 그러면 어떻게 되어 괴뢰들이 별별 짓을 다하며 이 몸을 파헤쳤어도 나는 살아서 조국의 품으로 왔는가. 그것은 수령복을 타고난 때문이오. 어버이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신 은인들이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3년 동안을 당조직의 명단에 이 리인모라는 이름을 그냥 두고 기다려주시었소. 이런 사랑을 내 알기에 그 어떤 악형 앞에서도 나는 굴복할 수가 없었소.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의리를 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 모진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이고 신념일진대 이것은 전적으로 두 분의 수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인모동지는 참으로 참다운 인간적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는 해방전 조선의 옛 정배지였던 풍산 촌사람에 불과한 자기를 그토록 키워주고 기다려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의리를 순간도 잊을 수 없어 그런 영웅적인 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을 수없이 키워내셨으며 키워내고 계십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혁명동지를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고 남녀 청년들이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따뜻이 돌봐주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이 그 어디서나 활짝 꽃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아름다운 용모나 현란하고 요란스러운 겉치레로써는 대비할 수도 꾸밀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아름다워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공화국북반부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